

조쿠시문

조쿠시문(勅使門)은 난테이로 가는 입구가 되는 문인데,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천황 또는 그 사자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자체는 옛날부터 이 장소에 지어져 있었으나 원래의 문은 1887 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고, 현재의 문은 1913 년에 교토의 장인 가메오카 스에키치(1865~1922 년)의 설계에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이 문에는 일본적인 요소와 중국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삼나무 껍질로 인 지붕과 네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문의 하층 부분에 만들어진 당나라 양식의 박공이 특징적입니다. 박공에는 자연을 주제로 한, 매우 장식적인 투각(透刻)과 부각(浮刻)이 세공되어 있으며, 부활과 재생을 상징한다는 봉황의 꿈지깃과 모란 당초 무늬가 조합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은 천황 또는 그의 사자만을 위한 것이지만 매년 10 월에는 가까운 후쿠오지 신사의 제례 행렬도 이 문을 통과합니다.